

Interview einer Erzieherin / eines Erziehers

Das Interview wird mit Personen aus verschiedenen Ländern geführt und jeweils eines aus Deutschland und einem anderen Land in Kombination im Blog von KiTA-Global.de und einem zugehörigen Newsletter veröffentlicht.

Vorstellung Ihrer Person

Zur Vorstellung Ihrer Person, füllen Sie bitte die folgenden Informationen aus.

Name:	Song, Hwa Sin
Herkunftsort:	Sued Korea
Land in dem Sie leben und arbeiten:	Bu-cheon
Alter: (optional)	28
Familienstand: (optional)	ledig

Bitte fügen Sie dem Interview ein Bild von sich bei!

(Ein Bild von Ihrem Oberkörper wäre schön. Ein Beispiel des Formats finden Sie [hier](#).)

Fragen von Erzieher zu Erzieher

Im Folgenden werden Ihnen Fragen zu Ihrem Arbeitsplatz, Ihrer Ausbildung und Ihrem Arbeitsalltag gestellt. Das Interview dient dazu, anderen ErzieherInnen zu berichten, wie es in Ihrer Stadt/ Ihrem Land so zugeht und wie es sich von dem eigenen (möglicherweise) unterscheidet.

Stellen Sie sich also vor, Sie berichten Kollegen! Was könnte diese interessieren?!

Was würde Sie selbst interessieren?

Alltag in der KiTa

- Bitte erzählen Sie etwas über die Art und Größe Ihrer Einrichtung! (u.a. Anzahl der Kinder in den Gruppen, Anzahl der Gruppen, Personalschlüssel)
- Bitte beschreiben Sie das soziale und familiäre Umfeld der Kinder!

일반적으로 한국은 단일연령으로 반이 구성이 된다. 보육법상으로는 0 세 1:3, 1 세 1:5, 2 세 1:7, 3 세 1:15, 4 세 1:20, 5 세 1:20 의 교사대 아동비율을 갖고 있다. 대부분에 유치원은 이런 형태의 단일반을 구성하고 있다.

신한일어린이집(Shinhanil Kindergarten)은 일반적인 유치원보다 교사에 비해 아동수가 적은 편이다. 또 혼합연령반도 구성되어 있어서 다른 연령의 아이들과 교류가 많다.

	1 살	2 살	3-4 살(혼합)	5 살	Etc
Kinder	10	7	15	9	원장 1 명 조리사 2 명
Erzieherin	3	1	1	1	
보조교사		1	1		

신한일어린이집은 한일전기회사(Hanil Electric)의 노동자의 자녀가 다니는 직장보육시설이다. 부모들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생활한다. 8:00 부터 19:30 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들이 출근하는 8:30 부터 퇴근하는 18:30 까지 어린이집에 있다. 가정적인 배경은 다문화가정이 한 가정, 이혼가정 한 가정이 있고, 이 외에는 모두 친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아이들이다.

• Wie sieht der Alltag in Ihrer KiTa aus? Welche Abläufe gibt es?

1-2 세(kleinstkinder)		3-5 세(Kinder)	
08:00-09:00	등원 및 자유놀이	08:00-09:00	등원 및 자유놀이
09:00-09:30	오전간식	09:00-09:30	오전간식
09:30-10:50	자유놀이	09:30-10:40	자유놀이
10:50-11:00	아침모임	10:40-11:00	아침모임
11:00-11:50	산책	11:00-12:10	산책
11:50-12:50	점심식사 및 양치질	12:10-13:10	점심식사 및 양치질
12:50-15:20	낮잠시간	13:10-14:40	낮잠시간
15:20-15:50	오후간식	14:40-15:10	오후간식
15:50-17:50	자유놀이	15:10-16:00	자유놀이
17:50-18:00	마무리모임	16:00-16:50	특별활동 (목공,뿔발키우기,미술,음악)
18:00-19:30	하원	16:50-17:50	자유놀이
		17:50-18:00	마무리모임
		18:00-19:30	하원

나는 현재 1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나는 아이들이 자유놀이를 할 때 함께 놀아주고, 아이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건강상태를 살핀다. 놀이 후에는 동그랗게 앉아서 촛불을 켜고 조용한 모임을 갖는다. 조용한 모임에서는 노래를 부르고, 하루나 주중에 있을 특별한 일에 대해 이야기나누기를 한다. 나는 하루생활 안에서 언어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한다.

또한 3-5세에는 기본생활이 잘 지켜지도록 습관을 형성하고 기본 도덕성이 만들어지는 시기이다. 교사는 아이들이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돕고 본보기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밥 골고루 먹기(편식하지않기), 양치질하기, 산책 갈 때 동생들 손 잡아주기, 옷을 스스로 입고 벗기이다.

• Gibt es eine Konzeption in Ihrer KiTa? Welche Aspekte sind Ihnen besonders wichtig?

교육부(정부)모든 영유아의 평등한 교육수준을 위하여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과정을 만들었다. 영아(0-2 세)를 위하여 표준보육과정과 유아(3-5 세)를 위한 누리교육과정이다. 그리고 모든 유치원이 이러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일반적인 유치원과 다르게 신한일어린이집은 독일의 발도르프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유치원은 한국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두고, 발도르프교육의 좋은 점들을 접목하였다.

개인적으로 아이들에게 ‘놀이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신한일어린이집에 교실의 구성을 보면 발도르프 교육에서 제시하는 자연물 놀이감(나무블록, 돌맹이, 씨앗, 천 등)이 대부분이다. 놀이의 방법이 정해진 놀이감으로는 놀이가 다양하게 변형될 수 없다. 하지만

자연물 놀이감은 나무블록 하나를 가지고도 전화기, 선물, 꽃, 음식, 돈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켜 놀이할 수 있다. 자연물 놀이감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높여주고 다양한 놀이를 시도하게 한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놀이가 중요한데, 무엇을 가지고 놀이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세상도 달라진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다.

• Was möchten Sie persönlich den Kindern weitergeben?

개인적으로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과 신뢰라고 생각한다. 0-3 세에는 신체발달과 정서적인 내면의 성장이 주된 발달단계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은 주양육자와 신뢰관계를 통한 내면의 안정감이 기본바탕이 되어 즐겁게 놀이하며 신체의 발달을 이루는 시기이다.

지금 1 세반을 맡고 있는 교사로서 부모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아이들이 긴 시간을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교사와 일대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친구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큰 스트레스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을 돌볼 때 스킨십을 많이 한다. 나는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면서 아이들이 사랑을 많이 느끼길 원한다.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실수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이해해주고, 믿어주는 사랑'은 큰 격려가 된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유치원에서의 기억을 잊을 수 있지만, 받았던 사랑의 느낌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 Wie ist ihre Beziehung zu den Eltern der Kinder?

나는 아이들의 부모와 등원시간, 하원시간에 아이들의 건강상태나 가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나는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 얼굴을 보며 인사를 나누고 아이에 대한 사소한 이야기를 자주 하면서 부모와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나는 매일 아이마다 ,대화수첩'을 작성하여 부모와 교류한다. ,대화수첩'에는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부모가 적어오고, 어린이집에서 지낸 일을 교사가 적는다. 우리는 매일 수첩을 주고 받으면서 만나서 하지 못한 말을 전달한다.

교사들이 아이들의 놀이활동을 사진을 찍어서 유치원 Blog(인터넷) 에 올린다. 부모들은 Blog 에 올라온 사진을 확인하고 kommentar 를 적는다. 온라인 상에서도 부모와 교사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1 년에 두 번 학부모 상담시간을 갖는다. 나는 상담시간에 부모들이 갖고 있는 양육관과 가정에서 아이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아이들의 발달단계나 행동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아이들에게는 일관된 양육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되도록 부모의 양육방법과 유치원에서의 양육방법을 일치시키려고 함께 노력한다.

• Gibt es Kinder unterschiedlicher Religionen/Konfessionen in Ihrer KiTa und wie wird das Zusammenleben gestaltet?

유치원에는 무교/기독교/가톨릭/불교를 믿는 아이들이 있다. 5세 아이들의 경우에는 서로 존재에 대한 다름을 인정하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도 허용적이다. 그래서 서로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교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야기전달이

이루어진다. 다른 아이들도 '아, 그렇구나.'라고 반응하며 듣는다.

유치원에서 식사하기 전에 아이들과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한다. 자연과 신에 대한 감사기도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아이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아이에게 시키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서 식사 전에 감사에 대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다. 그 후로는 그 아버지도 감사기도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였다.

Ausbildung und Beruf des Erziehers

- Bitte beschreiben Sie kurz Ihre Ausbildung zum/r ErzieherIn! (Schwerpunkte? Wie lang dauerte diese? Was fehlt? etc.)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 (Dept.of Child Care and Education) 8학기과정으로 교육을 받았다. 교육과정 안에서 실습(Praktikum)은 한달 동안 유치원에서 하였다. 중심주제는 보육학(Child care Education) 과 아동발달(Child Development) 이다.

아쉬운 부분은 실습기간이 짧기 때문에 현장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취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취업 후에 일을 하면서 이론과 다른 부분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일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독일처럼 실습기간을 1년 정도로 하여 현장경험을 쌓는 것이 도움이 더 될 것 같다.

유치원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인지학센터(Zentrum zur Foerderung der Anthroposophie in Korea)에서 발도르프영유아교육과정(Freien Fachschule fuer Sozialpaedagogik-Waldorfkindergarten-Seminar) 5학기 연수를 받았다. 이 연수를 받으면서 독일 Stuttgart Waldorf Kindergarten Sonnenberg에서 일주일동안 관찰실습을 하였다.

- Wird Ihrer Meinung nach in Ihrem Land der Beruf des Erziehers wertgeschätzt?

안타깝게도 나는 한국에서 보육교사가 인정받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육교사가 되는 방법으로는 4 년제 대학교(University) 졸업이나 2-3 년제 전문대학(College)졸업, 또는 1 년 과정 자격증 취득반이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시간을 들이고 어렵게 얻어지는 것은 그만큼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생긴다. 쉽게 얻어지는 것은 쉽게 포기할 수 있게 된다. 나는 4 년동안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고,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그렸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육교사는 쉽게 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보육교사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쉽게 얻어지는 교사자격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은 맞벌이가정이 많기 때문에 유치원이 많이 필요하다. 이것은 첫번째 목적이 유치원은 일하는 부모의 필요를 위해 생긴 기관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치원에서 부모의 요구가 첫번째로 수용되고, 교사는 부모의 대리자가 되었다. 또한 부모의 부재로 인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교사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많다. 하지만 교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2015 년 초에 유치원에서 일어난 아동학대가 이슈가 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아동학대 해결책으로 2015 년 12 월부터 모든 유치원 교실에 CCTV 를 설치할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였다. 교사들은 CCTV 로 인해서 교사의 인권을 침해받고, 부모와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CCTV 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교사는 예비 범죄자가 되어 감시를 받는 입장이 되었다. 제도적인 규율로 인해 교육자의 기본적인 신뢰를 잃어가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한국은 너무 바쁘게 움직이는 나라이다. 그러다보니 아이를 키우는 것조차 바쁘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그게 바로 보육교사이다. 비록 사회적으로 대우받는 직업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직업이며 더 존중받는 직업이 되길 바란다.

- Was würden Sie gern noch über ErzieherInnen aus anderen Ländern erfahren? (optional, um die zukünftigen Interviews noch interessanter zu gestalten!)

Bitte geben Sie direkt selbst eine Antwort auf Ihre eigene Frage:

-다른 나라에서는 보육교사가 어느 정도 수준의 대우를 받는지?

-보육교사로서 자신의 직업에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개인적으로 나는 보육교사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는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다.' 라는 말을 한다. 그만큼 아이들이 자라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중요한 인물이 된다는 것이다. 이 아이들이 가장 처음으로 발을 딛는 곳은 가정이다. 그리고 유치원이다. 0-5 살에 느낀 감정과 경험이 기본바탕이 되어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과 유치원에서 보육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볼 때 보육교사를 하고 있는 나는 중요한 다음세대를 키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이 직업을 통해 나중에 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내 직업에 감사하고 만족한다.